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전시장 설명 원고**

# 소재와 기법

## Materials and Technics

---

단추는 익숙하고 대수롭지 않은 작은 사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추에는 기술의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각 분야의 다양한 제작 기법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단추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끼리 가죽에서부터 야자 섬유, 흑옥, 코로조 너트(corozo nut), 연질 자기, 강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가 단추의 소재로 가능합니다. 심지어 조개껍데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추의 제작 기법도 다양합니다. 유리 뒷면에 금박이나 은박을 입히는 베르 에글로미제(verre églomisé) 기법을 비롯하여, 자개를 상감하는 종이 공예인 파피에 마셰(papier mâché) 기법, 실크 장식끈 기법 등 가장 정교한 기술이 단추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소재와 기법은 단추가 단순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서,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While buttons appear to be familiar and seemingly insignificant small objects, they also act as the memory of the development of savoir-faire and illustrate a diversity of techniques available in all fields. Buttons can be made from just about anything, from elephant skin to raffia, via jet and the corozo nut, soft-paste porcelain and cut steel. They may even be shaped from shells. There are also a variety of button making techniques. At different periods, the most sophisticated techniques such as verre eglomise, papier mache inlaid with mother-of-pearl, or silk passementerie have been used for making this accessory whose role and position on clothing has far outstripped the purely functional.

# 18세기 단추 제작자 길드

## Buttonmakers' Guilds in the 18th Century

---

18세기 유럽 남성복의 최종 형태는 코트, 조끼, 반바지를 한 벌로 하는 프랑스식 의복 ‘아비 아 라 프랑세즈(*l’habit à la française*)’였습니다. 이러한 의복에는 반드시 단추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단추와 단춧구멍은 기능이 있건 없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했습니다. 당시 단추를 생산하는 공정은 철저히 관리되었으며, 소재와 기술에 따라 다양한 직능의 장인이 참여했습니다. 목주 제작자는 뼈로 단추를 만들고, 목재나 금속 단추 제작자는 금속이나 목판으로 단추의 형태를 만들었으며, 장식꾼 제작자는 실이나 자수로 단추 장식을 마감했습니다. 금, 은, 보석 등의 귀한 재료는 금 세공사와 은 세공사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During the 18th century, *l’habit à la française*, made up of a coat or “habit”, a waistcoat and breeches, was the ultimate form of menswear. Buttons and buttonholes, whether functional or otherwise, were arranged in keeping with a strict code that clearly indicated one’s social status. Their production was highly controlled,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crafts depending on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Bone buttons were made by the *patenotriers*(rosary makers), while the button makers(or *butners*) of wooden and metal blanks were responsible for making the forms that the *passementiers* then covered with thread, metallic strips or purl. Only goldsmiths and silversmiths were permitted to use precious materials such as gold, silver, and jewelry.

# 자수 단추

## Embroiderers' Buttons

18세기의 남성복을 장식한 자수는 정교한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섬세함을 위한 새틴 스티치나 스플릿 스티치, 세부의 경쾌함을 위한 프렌치 노트 스티치나 스템 스티치, 반짝이는 장식 효과를 위한 금·은·스팽글 등 다양한 자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옷감을 재단하기 전에 자수업자는 여러 가지 수를 놓을 위치를 옷의 각 부분에 정했고, 잔잔한 무늬의 실크에 꽃과 나뭇가지, 도형 등을 조합한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자수업자는 일정한 폭의 직물 위에 테두리 장식, 옷깃, 주머니, 소매의 끝동, 연미복의 꼬리부분, 단추 자리 등을 마치 일정한 무늬처럼 배치했는데, 이를 ‘엥 피에스(en pièces, 여러 조각으로)’라 일컬었습니다. 옷에 쓰인 주된 문양을 단추에 축소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에 단추는 옷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Embroidery as used in men's clothing in the 18th century was a delicate art. Artisans perfected the satin stitch or split filling stitch for subtlety, French knot stitch or stem stitch for lightness of detail, or gold, silver, spangles and sequins for sparkle. Their arrangement on different parts of the garment was carried out by the embroiderer prior to cutting, who then traced a pattern of flowers, branches, and other interlaced designs onto façon-né silks. The compositions for edging, collars, pockets, facing, tails, and buttons were laid out by the embroiderer on the fabric widths like a pattern and were referred to as "en pieces"('in pieces'). The buttons echoed the garment's main pattern in miniature, and were therefore an integral part of its design.

# 영국풍의 유행과 여성복의 단추

## Anglomania and Buttons in Women's Clothing

---

18세기 거의 내내 여성복에서 단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단추는 영국풍의 패션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복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 르덴고트로 알려진 옷입니다. 1787년 『새로운 패션의 보고 *Magasin des modes nouvelles*』는 “프랑스식 영국 의상으로도 알려진 르덴고트를 대량으로 제공했지만, 우리는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지금 우리 (프랑스) 숙녀들이 이 옷만 찾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승마용이었던 의상을 여성용으로 번안한 르덴고트는 대개 간소한 흰색 린넨 속치마 위에 착용했으며, 옷감의 재단이나 단추의 배열 등은 당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Buttons were largely absent from women's wardrobes throughout most of the 18th century. A resurgence in usage began to appear in in English fashion, as women sought inspiration in men's clothing, notably with the dress known as the redingote. "Despite the large number of redingotes we have given, otherwise known as Franco-anglomanesdresses, we are obliged to give yet more. Our Ladies have almost no other clothing", stated the *Magasin des modes nouvelles* in 1787. The female version of this type of dress, reserved for riding on the other side of the Channel, was usually worn over a simple white linen underskirt and adopted not only the cut and sobriety of the fabrics used at this time, but also the code of its button arrangement.

# 그림 단추

## Buttons as Pictures

18세기 단추에 묘사된 주제들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변혁이나 혁신적인 기술 등을 반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노예제 폐지, 자연에 대한 동경, 공기보다 가벼운 비행체의 발명 등 시사적인 주제가 단추를 장식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남성들의 패션이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단추를 바꾸는 남성들을 위해, 정치적인 주제나 사랑의 메시지, 동물이나 건축물의 경관 등을 묘사하였습니다. 단추는 유리로 보호되는, 연작(series)의 세밀화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그림 단추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은 18세기 말의 장식 예술만큼 다양합니다. 즉 회색조의 색상을 이용하여 음영과 농담만으로 그리는 그리자이유 기법을 비롯하여, 유리 아래에 고정하는 기법, 상아 조각(彫刻), 웨지우드 도자기, 새의 깃털, 나비 날개, 매우 작은 식물 등 다양한 기법과 재료로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In the 18th century, the subjects depicted on buttons echoed the preoccupations of the Enlightenment, taking into account social upheaval and technical novelties. Topical subjects such as the French Revoluti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taste for Nature or the invention of aerostation(the science of operating lighter-than-aircraft) were all pretexts for adorning buttons. This was a masculine fashion—men changing buttons at a whim—depicting political themes, messages of love, animals, views of monuments, and so forth. Buttons were like miniature pictures, protected by glass and made in series.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were as varied as for the decorative arts at the end of the century: grisaille miniatures, fixed beneath glass, carved ivory, Wedgwood style porcelain, feathers, butterfly wings, and minute plant matter.

# 18세기 남성용 코트 단추

## Adornment for Coats

단추는 서양 의복에 등장하자마자 본래의 기능보다는 사치품으로서 새로운 장식의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뒤이어 은 세공사와 보석 세공사들은 보석 제작에 사용하는 동일한 소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고가의 단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17세기까지 단추는 매우 값비싼 것이어서, 프랑스의 왕들은 여러 차례 칙령과 사치 금지법으로 단추의 수와 사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18세기 말 남성들은 코트를 장식하기 위해 18개의 단추를 달았습니다. 이 단추들은 정교한 격식에 따라 대칭으로 배열되었으며, 늘 같은 양식을 따랐습니다. 즉 전면에 10개, 양 소매 끝동에 2개, 허리 뒷부분에 2개, 꼬리가 접히는 부분에 숨겨진 2개가 붙었습니다. 때로는 주머니 덮개 아래에도 보일락 말락 하게 단추를 달았는데, 대부분의 단추처럼 마름질을 보강하거나 장식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좁고 긴 단추 구멍을 가진 두세 개의 단추만이 실제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As soon as buttons appeared in Western garments, they ignored their primary role as functional objects in favor of a new decorative role as objects of luxury. Henceforth, silversmiths and jewelers designed sets of precious buttons, using the same materials and techniques as for jewelery-making. In the 17th century, buttons were such costly objects that the edicts and sumptuary laws promulgated by the kings of France attempted, on several occasions, to limit their number and use.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 man's coat was typically adorned with a set of 18 buttons. These were arranged in a highly codified and symmetrical manner that always followed the same pattern: ten down the front, two on each cuff, two at waist level on the back, and the last two hidden in the fold of the tails. Others were sometimes found under the pocket flaps, barely visible and without any other purpose than to adorn and reinforce the cut, like most buttons. Only two or three were really functional and had slit buttonholes.

# 조화와 절제 사이

## Between Balance and Moderation

---

제2 제정 시기, 단추의 잠금 방식은 당시 예의범절의 기준에 따라 여성들이 지켜야 했던 몸가짐을 반영합니다. 드레스 정면 하단부에 일렬로 배치된 단추는 여성의 실루엣과 균형을 이루며, 조화와 절제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기의 단추는 대부분 소박했으며, 천으로 나무나 판지를 감싸서 만든 작고 볼록한 모양이었습니다. 단추는 드레스의 색상과 같거나 좀 더 짙은 색이었는데, 옷의 재단을 보완하는 테두리나 매듭 장식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보디스(드레스 몸통 부분의 앞·뒤 몸판)에는 움직임이 쉽도록 몇 밀리미터의 여유를 둔 가로 방향 단춧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크리놀린(치마를 볼록하게 보이기 위해 안에 입는 틀) 위에 입는 치마 부분에는 실제 기능을 하는 단추나 가짜 단추를 달아 환상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During the Second Empire, button-fastening reflected the deportment imposed on women by the rules of decorum. Buttons were positioned in a line down the middle of the front giving a marked symmetry to the female silhouette, synonymous with balance and moderation. At this time, buttons were mostly plain and made of small convex blanks of wood or cardboard covered with fabric. They tended to be either the same color as the dress or of a darker color, matching the trimming or braiding that enhanced the cut of the garment. On bodices, horizontal button-holes provided several millimeters leeway for ease of movement. On skirts, supported by impressive crinolines, real and false buttons allowed for touches of fantasy.



# 잠금 방식과 몸단장

## Fastening and Adorning

---

1880년대쯤 보디스가 다시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몸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면을 따라 내려가며 조밀하게 달린 돔 모양 단추 열은 상체의 탄탄함을 강조했으며, 보디스를 단단히 여며 몸매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여성들은 스스로 드레스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웨딩 가운의 경우처럼 뒷면에 단추가 달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제3자나 하녀가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의복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By the 1880s, the bodice had returned with vengeance to hold women's bodies firmly in place. The tight rows of dome-shaped buttons down the front underlined the rigidity of the chest and enabled close-fitting bodices to shut firmly. While this allowed women to dress themselves, the buttons were sometimes positioned down the back, especially for wedding gowns. This arrangement, which implied the presence of a third party or a chambermaid, was strictly reserved for women and gave clothing a special character.

# 단추 산업과 그 확장

## Button Industry and Its Expansion

---

단추 산업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78년 프랑스에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추 산업에 고용되었고, 이들은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파리 북부 우아즈(Oise) 주에 위치한 메뤼(Méru) 마을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자개 단추의 중심지였으며, 파리 남부 루아레(Loiret) 주에 위치한 브리아르(Briare)는 유약을 입힌 도자 단추의 특산지였습니다. 당시의 백화점들은 남성복 도록을 갖추고, 산업적으로 생산된 온갖 모양과 크기의 단추들을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여성계에서도 단추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장갑부터 부츠, 심지어 속옷까지 여성 패션의 최신 유행에 활용되었습니다.

The button industry really took off in the 19th century. In 1878, in France, it employed over 30,000 people, playing an active part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town of Méru, in the Oise department north of Paris, became Europe's most important center for making mother-of-pearl buttons, while Briare in the Loiret departement south of Paris specialized in buttons made of glazed ceramic. The department stores had haberdashery catalogues displaying all available shapes and sizes of industrially produced buttons. At the same time, having become a permanent part of the female universe, buttons were used for many of the latest refinements of women's toilette, from gloves to boots and even on underwear.

# 일본풍의 유행, 아르누보의 탄생

## Japonaiserie and Art Nouveau

---

단추는 서구의 창조적 산물에 흔적을 남긴 모든 예술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의 장식예술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흔히 일본풍(자포네즈리)으로 불리던 일본 미술과 더불어,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아르누보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서 확인됩니다. 가구에서부터 보석과 직물까지, 그리고 당연히 단추에서 그 영향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적 영감을 모색하거나 과거의 양식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예술가와 공예가들은 조각 기법을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물결 무늬 모양이나 양식화된 모티프를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은 세공사와 보석 세공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끌로 파거나 심지어 법랑 도료를 입힌 금속 투각 단추를 창작했습니다. 이러한 단추들은 마치 일상복을 장식하는 보석 세트라도 되는 듯, 귀중한 선물처럼 보석 상자 안에 담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buttons echoed the art movements that had left their marks upon the creative output of the West, especially in the area of the decorative arts. The influence of Japanese art, generally referred to as japonaiserie, followed by that of Art Nouveau, was found in all fields, from furniture to jewellery via fabrics and, of course, buttons. In their search for new aesthetic inspiration or as a reaction against styles of the past, artists and craftsmen adopted a stylistic approach that favored sinuous forms, stylized motifs, and a rejection of anything sculptural. Silversmiths and jewelers therefore created buttons in metal openwork that was chiseled and even enameled. They were sometimes presented in jewellery cases, like precious gifts, as if they were sets of jewellery for adorning daytime clothes.

# 19세기 남성복과 단추

## Buttons and Masculine Style

---

19세기 남성복은 지나치게 호사스럽게 보이는 색깔이나 사치스러움을 없애가면서 점점 수수해졌습니다. 단추도 같은 길을 가는 했지만, 절제된 우아함의 표시로서 또한 유명한 남성 인사들이 지켜야 할 복식의 규범으로서 본질적인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19세기 전반 영국의 멋쟁이들은 스타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좌우했던 조지 브럼멜(George Brummell, 1778~1840)을 본보기로 삼았으며, 이어서 프랑스의 멋쟁이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전에 비해 남성복이 수수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규칙의 유일한 예외로 금 단추가 존재함으로써 남성복을 화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변화를 거듭하던 조끼에 달린 단추는 옷의 선에 힘을 주고 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During the 19th century, men's clothing became increasingly sober, doing away with color and superfluity seen as overly ostentatious. While buttons also went the same way, they nonetheless retained an essential role, becoming a mark of understated elegance and a code for all men of distinc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century, English dandies, followed by the French, modelled themselves on George Brummell(1778–1840), arbiter of all matters of style. While men's clothes were expected to be sober, they were sometimes brightened by the presence of gold buttons, the sole exception to the rule. On waistcoats, the cut of which was continually changing, buttons were used to reinforce the garment's line and add to the outward expression of its sophistication.

# 1910~1920: 전환점

## 1910–1920: The Turning Point

---

20세기의 첫 10년은 여성 패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코르셋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제약받았던 여성의 실루엣은 좀 더 직선적으로 변했습니다. 조그만 단추를 많이 달아 새로운 실루엣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단추들은 가짜 단춧구멍이나 “수탄”이라 불리는 매듭끈 고리가 있는 솔기를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여성을 코르셋에서 해방시킨 최초의 프랑스 디자이너인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는 단추에 명예로운 지위를 부여한 초창기의 디자이너였습니다. 단추는 그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어서, 구성에 통일성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습니다. 이후로 단추는 남성의 우아함이나 보석에 대한 규범과 관련된 예법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The fir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marked a turning point in women's fashion. The female silhouette, which, until then, had been shaped and constrained by corsets, became more linear. This new silhouette was emphasized by many tiny buttons placed along the seams with false buttonholes or small loops of braid, referred to as “en soutane”. Paul Poiret(1879–1944), the first French designer to liberate women from the corset, was one of the first couturiers to give buttons pride of place in his designs. They were the highpoint of his compositions, frequently inseparable from them and with no other purpose than to give them unity. Henceforth, the role of buttons was no longer solely dictated by decorum linked to the codes of male elegance or of jewellery.

# 1920년대: 컬러와 비대칭

## The 1920s: Color and Asymmetry

---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물결 위에서, 여성의 패션은 여성의 신체를 해방시키는 단순하고 물 흐르는 듯한 선을 택했습니다. 간결한 재단선(cuts)은 균형 잡힌 여성의 맵시 대신 중성적인 외양을 강조했습니다. 소년 같은 여성을 의미하는 ‘가르손느(garçonne)’나 신여성을 의미하는 플래퍼(flapper)의 유행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단추는 이렇게 새로운 실루엣의 균형을 구성하면서 수직으로 배열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에 대한 열정이 강렬해지면서, 중국식으로 측면에 단추를 배열하거나 러시아의 페전트 셔츠처럼 단추를 배치했습니다. 깐러리스나 셀룰로이드와 같은 새로운 소재도 사용하였는데, 플라스틱의 최초 형태로 여겨집니다. 이것들의 화사함과 더불어, 특히 색채의 선택과 관련된 무한한 가능성 덕분에 의복의 선을 강조하면서 대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With the surge of freedom that typified the 1920s, women's fashion opted for simple, flowing lines that liberated their bodies. Simplified cuts did away with shapeliness, conferring an androgynous appearance referred to as 'garçonne' or flapper. Buttons structured the proportions of this new silhouette, and were arranged in vertical lines. With the seemingly inexhaustible enthusiasm for the Orient, they were arranged on the side, Chinese style or as on Russian peasants' shirts. New materials were also used, like galalith or celluloid, considered to be the first form of plastic. Their brightness and infinite possibilities, notably of color choice, were used in a game of contrasts to enhance the line of garments.

# 아르데코 스타일

## Art Deco Style

---

아르데코를 대표하는 여러 조류들은 장식 미술의 모든 분야에 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모든 분야의 창작자들, 즉 예술가와 장식 미술가들은 분야 간의 장벽을 허물면서, 패션계를 위해 섬유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꽃으로 양식을 실험했고, 공예가인 장 뒤낭(Jean Dunand, 1877~1942)과 화가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1885~1979)는 새로운 여성의 실루엣에 잘 어울리는 기하학적 무늬를 고안했습니다. 라울 뒤피(Raoul Dufy, 1877~1953)는 실크 제조자 비앙시니 페리에(Bianchini-Férier)를 위해 이국적인 날염 무늬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보석 세공업자와 장신구 생산자들이 이러한 주제와 경향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자수업자 레베(Rébé)는 색채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매우 단순하기는 하지만 가장 적절한 소재들을 조합했고, 르팡(Lepant) 사<sup>社</sup>도 다양한 색상의 장신구와 단추를 생산했습니다.

The various currents that typified the Art Deco movement were echoed in all fields of the decorative arts. Creators from all horizons, artists and decorators, turned to designing fabrics for the world of fashion, break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disciplines. For some of them, flowers became a stylistic exercise, while for Jean Dunand(1877–1942) and Sonia Delaunay(1885–1979), geometric motifs perfectly matched the forms of the new female silhouette. As for Raoul Dufy, he designed exotic prints for the silk manufacturer Bianchini-Férier(1877–1953). Fine jewelry makers and accessory producers, in turn, appropriated these themes and currents. The embroiderer Rébé, for example, combined the simplest but most appropriate materials in order to accentuate color contrasts, while the Lepant firm created equally colorful accessories and buttons.

# 장식예술가 앙리 암

Henri Hamm  
1871-1961

---

이 아름다운 단추들은 앙리 암의 공방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1919년, 『미술과 장식 *Art et Décoration*』이라는 잡지는 앙리 암에 대해 “멋스럽고, 스스로 미술에 조예가 깊다고 생각하는, 파리의 모든 여성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앙리 암은 나무부터 자개, 뿔, 갤러리스, 도자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단추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새기고 깎아 만든 그의 단추는 깔끔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는 동식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장식의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티프를 최대한 양식화해서 그 본질만 남겨놓았습니다.

These beautiful buttons come from the workshop of the artist-decorator Henri Hamm(1871–1961), also known as a ‘tabletier’(maker of games and decorative pieces). In 1919, the magazine *Art et Décoration* referred to him as being known to all stylish Parisian women “who prided themselves on being au fait with the art scene”. His buttons illustrate his taste for a wide range of materials from wood to mother-of-pearl, via horn, galalith, and ceramic. Their decoration is uncluttered but technically skillful, with significant sculptural and chisel work that displays a love of motifs inspired by flora and fauna which he stylized to the point of retaining nothing other than their very essence.



# 1930년대: 기하학, 재단, 추상

## The 1930s: Geometry, Cut and Abstraction

---

1930년대, 디자이너들은 장식보다 선과 소재를 중시했습니다. 드레스와 외투는 명백히 단순함을 강조했으며, 숙련된 재단으로 깔끔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 시기의 단추는 순수한 형태의 작은 조각품 같았고, 특히 일상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자이너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 1876~1975)는 단추를 사선으로 배열하거나 짙은 색 단추로 힘을 주어, 바이어스 위의 매끈하고 밝은 색의 크레이프 재단과 호응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비대칭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완성하기 위해 예술가의 도움을 요청한 디자이너도 있었습니다. 1938년, 도예가 기데트 카르보넬(Guidette Carbonell, 1910~2008)은 디자이너 자크 하임(Jacques Heim, 1899~1967)을 위해 그의 고전적인 줄무늬 천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색조와 무늬로 단추를 디자인했습니다.

In the 1930s, couturiers favored line and material rather than decoration. Dresses and coats displayed an apparent simplicity, their uncluttered style being based on skilled cuts. Buttons of the period were designed, like small sculptures with pure form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on daytime outfits. On those designed by Madeleine Vionnet(1876–1975), the buttons were arranged in oblique lines and dark accents, echoing her flowing, light colored crepes cut on the bias, and reinforcing the overall asymmetry. To round off the harmony, some couturiers chose to call upon artists. In 1938, the ceramicist Guidette Carbonell(1910–2008) designed a series of buttons for Jacques Heim(1899–1967) in tones and patterns that were perfectly balanced by the play of the couturier's classical striped fabrics.

# 패션계의 초현실주의자, 엘자 스키아파렐리

Elsa Schiaparelli  
1890-1973

---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코코 샤넬(1883~1971)과 함께 1930년대 파리 패션계를 주도하였습니다. 패션계의 초현실주의자라 불리며, 특별한 주제의 패션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서커스, 점성술, 나비 등의 주제는 당시 패션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초현실주의로부터 영감을 받거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함께 고안한 그녀의 디자인은 단추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장식예술가 장 클레망은 스키아파렐리를 위해 도자기나 수지로 모환적이고 감성적인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장 쉴룸베르거도 그녀를 위해 에나멜을 씌운 금속으로 보석 단추를 제작했습니다. 스키아파렐리는 야회복에 최초로 단추를 달았는데, 다른 옷에 쓰이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사용했습니다.

Elsa Schiaparelli(1890–1973) from Italy is a designer who led the Paris fashion world in the 1930s with Coco Chanel. In the late 1930s, Elsa Schiaparelli, who is called surrealist in fashion, distinguished herself from other couturiers by having themed shows. Her choice of subjects—the circus world, astrology, or butterflies—revealed her rather unusual personality for the fashion world. Her designs, especially those inspired by the Surrealist movement or those created alongside avant-garde artists like Salvador Dalí(1904–1989), Jean Cocteau(1889–1963), and Jean-Michel Frank(1895–1941), gave particular importance to precious details and buttons. Jean Clément(1900–1949) invented fanciful figures and impulsive motifs for her in ceramic that were glazed and in resin, while Jean Schlumberger(1907–1987) produced jewellery buttons in enameled metal especially for her. At this time, Schiaparelli was the only designer to use buttons, which were frequently outsize, on evening wear.

# 1930년대의 파뤼리에

## Paruriers of the 1930s

---

자수업자, 깃털 공예가, 주름 장인, 구두 제작자, 단추 제작자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통칭 보석 세공사나 장식품 제작자라는 뜻의 ‘파뤼리에’라 불렸습니다. 고급 맞춤복인 오프꾸뛰르(haute couture)가 발달하면서, 파뤼리에들은 매 계절마다 디자이너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장식품 제작자와 디자이너들의 긴밀한 협업은 이러한 교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디자이너 폴 푸아레가 단추의 독창성을 모색했고 자극했으며, 스키타파렐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파뤼리에에게 작업을 부탁했는데, 파뤼리에 각자는 저마다의 스타일과 선호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주 공방 가운데 하나였던 루슬레(Rousselet)는 자개 단추를 제작했으며, 르 마르상(Le Marchand)은 가죽 공예가 전문이었고, 로제 세마마(Roger Scemama)는 보석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들은 의상용 보석의 세계와 단추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For as long as haute couture has existed, embroiderers, feather craftsmen, pleat-makers, bootmakers and buttoners—craftsmen whose skills are grouped under the general title of ‘parurier’(fine jewellery-maker and accessory producers)—have created collections every season which they offer to couturiers. Close collaborations have resulted from these exchanges. More than any other couturier, Paul Poiret, followed by Elsa Schiaparelli, sought and provoked originality with regard to buttons, thereby calling upon the services of paruriers. Each accessory producer had his/her style and favorite materials: Rousselet, one of the most important firms working with pearls, made mother-of-pearl buttons, Le Marchand specialized in leatherwork, and Roger Scemama, best known for his jewellery, exemplified the complicity between buttons and the world of costume jewellery.

# 1940년대 애국주의와 단추

## Patriotic Buttons of the 1940s

---

1941년에 간행된 『패션과 작업 *Modes et Travaux*』이라는 잡지는 “단추는 옷의 화장품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물자가 부족하던 1940년대에 단추는 유쾌한 느낌이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벨트 등과 맞추어 수수한 옷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머니에도 종종 단추를 달아서, 패딩을 넣어 인위적으로 둥글게 만든 엉덩이 부분의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때로 단추를 의복과 같은 소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시에(Tessier), 아르도르(Ardor), 로디(Rhodi), 엘렉트라(Elektra) 같은 동 시기의 공방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볼 수 있듯이 도자기로도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전쟁 내내 단추는 개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방의 시기에는 프랑스 국기로 단추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Buttons are the make-up of dresses”, pronounced the magazine *Modes et Travaux* in 1941. During that time of penury in 1940s, buttons served to adorn simple dresses, with matching belts, in an attempt to add a touch of gaiety or individuality. They were often placed on pockets, highlighting the curve of the hips which were artificially rounded by padding. Sometimes they were made in the same material as the garment they served to close; they were also frequently made in ceramic, as seen in the output of firms of the period such as Tessier, Ardor, Rhodi, or Elektra. Meanwhile, throughout the Second World War, buttons were a way of expressing one's convictions; at the time of the Liberation, they were decked with the French colors.

# 예술가들의 은 세공사, 프랑수아 위고

François Hugo  
1899-1981

---

프랑수와 위고는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증손자입니다. 위고는 1950년대부터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일하면서, 타출 기법의 대형 은제 접시와 금제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장 아르프, 막스 에른스트 등의 유명 작가와도 협업했던 위고는 1939년부터 1955년까지 고급 맞춤복을 위한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전선에 쓰이는 황동 선을 구부리고, 꼬고, 눌러서 단추를 만들던 그는 점차 에나멜이나 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18세기의 단추를 모방한 그림 단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든 단추 가운데 가장 사치스러운 것은 엘자 스키아파렐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커다란 돌을 도금한 금속으로 감싼 단추였습니다.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과 코코 샤넬도 위고의 단추를 애용했습니다.

François Hugo(1899–1981), known as the “Silversmith to the Artists”,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jewelers. He is also a descendant of Victor Hugo, a well known writer of *Les Misérables*. From the 1950s, he worked closely with Pablo Picasso for whom he created large silver dishes with repousse work and gold jewelry, which he also did for Jean Arp, Roberto Matta, Jean Lurçat, Max Ernst, André Derain, and Jean Cocteau. Between 1939 and 1955, he made buttons for haute couture. The earliest were made from simple brass wire, normally used for electricity, which he bent, braided and squeezed. These were followed by ones made of enamel and polished wood, or others imitating 18th century buttons with paintings. The most extravagant were those made for Elsa Schiaparelli, like these large mounted stones resembling precious stones. Christian Dior, Chanel, and Jacques Fath all called upon Hugo’s skills for their collections.

# 1950년대 단추의 의미, 그리고 파뤼리에의 황금시대

## The Meaning of Buttons in 1950s and the Golden Age of Paruriers

---

전쟁이 끝나자, 여성들은 지난 시대의 빈곤과 제약을 잊고,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여성성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좀더 세련된 패션을 갈망했습니다. 단추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패션 잡지에는 단추만을 다루는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1950년대는 보석 세공사이자 장식품 제작자인 파뤼리에의 황금시대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이너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장식품 공방들이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로제 장-피에르(Roger Jean-Pierre, 1934~1976)와 프란시스 윈터(Francis Winter)의 작품은 크리스찬 디올의 드레스를 장식했으며, 그리푸아(Gripoux) 공방은 특히 샤넬을 위해 많은 단추를 제작했습니다. 본래 마들렌 비오네를 위해서만 작업했던 조르주 데뤼(Georges Desrues)는 나중에 발렌시아가(Balenciaga), 자크 파트(Jacques Fath) 그리고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의 주문 제작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단추들은 마치 의복의 보석 장신구처럼 제작되어, 놀랄 만한 범위의 소재나 기법을 보여줍니다.

After the War, women wanted to forget the years of penury and restriction, longing for more sophisticated fashions that would once again allow them to make the most of their femininity. Butt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eeting these desires. They emphasized women's figures and added a note of refinement. Entire articles were written about them in fashion magazines. The 1950s became the golden age for 'paruriers'(makers of fine jewelry and accessories). Many new workshops were opened to cater for the growing needs of new couturiers. The creations of Roger Jean-Pierre and Francis Winter adorned the dresses of Christian Dior. The Gripoux firm designed countless buttons, notably for Chanel. Having originally worked exclusively for Madeleine Vionnet, Georges Desrues subsequently undertook commissions for Balenciaga, Jacques Fath, and Hubert de Givenchy. The buttons from this period illustrate an astonishing range of materials and techniques, designed as if costume jewelry for clothes.

# 예술가들의 단추

## Artists' Buttons

---

단추는 언제나 창조성의 보고寶庫였습니다. 보석 디자이너, 은 세공사, 장난감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들의 기술을 자연스레 단추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드는 연철 장인이나, 도예가, 유리 제작자들이 이렇게 작은 패션 장신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각가나 화가 등 예술가들이 이러한 소박하고 일상적인 사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직경 몇 밀리미터인 작은 대상에 오롯이 집중함으로써 선입견을 버리고 단추에 일정한 지위와 예술적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Buttons have always been a treasure trove of creativity. While it might appear quite normal for jewelry designers, silversmiths and makers of games and decorative pieces to turn their hand, and their savoir-faire, to making buttons, it is rather more surprising to find craftsmen of wrought iron, ceramicists, and glass-makers who sometimes make monumental objects, involved in making this small fashion accessory. It is even more surprising to find that artists, sculptors, and painters took an interest in this modest, everyday object. Many of them, however, by focusing on a subject several millimeters in diameter, endowed buttons with a status and an artistic dimension far beyond any common preconception of them.